

데스크시각

정 후 식



‘대한민국호(號)’의 차기 5년 항로를 결정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4개월여(147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유권자들은 극도의 정치혐오 속에서도 20년만에 총선에 이어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만큼 정치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장외의 강호(强豪)’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몸풀기도 흥미진진하다.

영남패권 vs 호남패배주의

경선에 뛰어난 여야 후보의 출신 지역을 보면 영남 편중이 뚜렷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13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7명이나 된다. 안 원장도 부산 출신이다. 민주통합당 후보도 부산·경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인사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선과 이슈도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영남 독식론’이나 참여정부 출신의 ‘친노 책임론’이

그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광주·전남 민심은 착잡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의 본산이자 야권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지역 정치권의 위상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주류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며 고군분투하고 있

대선후보 경선과 광주·전남 민심

지만, 현재까지 대선주자 ‘빅3’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그럼에도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은 광주·전남에서 시작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냈고 시대정신의 방향타 역할을 해온 정치적 상징상 때문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마치 신託(神託)을 받으려는 순례자처럼 맨 먼저 광주·전남을 찾는다. 경선도 이 곳에서 시작된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25일과 26일 광주에서 각각 첫번째 합동연설회를

연다. 지역민들은 대부분 찾아오는 후보들을 따뜻하게 격려한다. 표 달라고 할 때는 ‘위대한 광주’라고 치켜세우다 정권을 잡으면 ‘내가 좋아서 찍었느냐’며 살전스럽게 굴어도, 역차별이 기승을 부려도, 정신과 비전이 살아있다면 기꺼이 불표를 안겨줄 태세다. 가없는 톨레랑스(Tolerance)의 자세다.

이는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광주일보가 지난달 15~16일 리서치부에 의뢰해 광주·전남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안 원장 33.3%, 문재

인 후보 21.1%, 박근혜 후보 13.6%, 손학규 후보는 12.6%의 지지를 얻었다. 격정스러운 것은 지역민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투표를 저하가 징표다. 선거때 마다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광주의 투표율은 최근 10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89.9%, 2002년엔 78.1%로 16개 시·도 가운데 단연 1위였지만 2007년엔 64.3%(6위)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은 42.4%로 전국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유력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기대감 상실과 패배주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한몫을 했을 게다.

경쟁력있는 후보 선출부터

‘민주주의자’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해 병마와 싸우면서도 ‘2012년을 점령하라’고 호소했다. “2012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 한 번의 기회인 총선에서 민주당은 자만에서 비롯된 부실 공천과 독선으로 다잡은 승리를 날렸다. 남은 것은 이제 대선뿐이다. 승패의 관건은 민심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다. 경선 흥행과 후보단일화도 변수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과 결선투표, 범야권후보 단일화 등 4단계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현 단계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원장을 이끌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은 수십년간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민주당의 또 다른 분열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민들도 경선이 마이내리그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줘야겠다.

〈정지부장〉who@kwangju.co.kr



임 명 재

그때가 1996년 가을 무렵이었다. 허리가 안 좋다고 불평하던 아내의 등 뒤에서 허리를 살펴본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척추가 마치 뱀처럼 좌우로 휘어있었다. 밤마다 통증에 시달렸고 걷지도 못해 엎혀서 이동해야할 지경이었다. 마침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통제도 거부하고 어떻게든 치료 방법을 찾아다녔다. 신경의과 의사 선배를 찾아 진찰을 해보니 요추 두 군데의 디스크가 탈출 되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산모와 태아에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이를 지우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기 고



김 동 일

나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걱정스런 문제 한 가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강진 백련사 가는 길에 ‘늦봄 문익환 학교’라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다. 통일운동가로 한평생을 바친 고 문익환 목사의 뜻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안학교다. 문목사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평화공존으로 바꾸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일생을 던진 일은 객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아침 시간대 불륜·폭력 방송 자제했으면

경남 통영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그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이번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이 살해되었다. 이런 사건의 뒤에는 항상 성범죄나 혹은 TV등의 잔혹한 영상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잖다.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직장과 학교에 보낸 후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 가정 주부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아침방송 TV를 시청하는 게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다. 필자도 설거지와 청소를 마친 후 자주 시

어머니와 함께 아침 방송을 보곤 한다. 그런데 요즘 아침 방송의 소재 선택이 다소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성 매매나 성폭력 범죄, 살인사건 등은 이른 아침에 듣기엔 조금 거부감이 드는 소재들이다. 특히 ‘부부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부간의 다툼이나 불륜, 폭력 등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정말로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주요 사건을 보도하고 주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인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점점 방송빈도가 잦아지고 심

최선의 선택

여 왔다.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 얼마나 진정으로 바라며 도전하는가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또 다른 최선의 선택을 설명하였다. 그 당시 경제가 어렵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아버지 박정희는 불가피하게 5·16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보다 이전에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 개개인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한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와 성공,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발전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의 선택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강진 ‘늦봄 문익환학교’ 걱정스럽다

다고 본다. 무엇보다 독재정권이 남북대치 상황을 집권연장의 도구로 악용하고 안보를 빌미로 국민을 억압하던 시기에 투옥을 불사하며 맞선 그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한편 문목사는 대부분의 통일운동가의 삶이 그렇듯, 불가피하게 친북 내지 종북의 성향을 띤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문목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했고 심지어 문익환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다. 주빈을 억압하는 세습왕조 북한체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돼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도 문목사에 대한 평가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분단이 낳은 갈등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강진의 문익환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백번 보해도 이해하기 어렵

다. 지난 5월 6일 간지 보도에 의하면 과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는 간첩죄로 복역한 사람도 있고 비전향장가들도 있다고 한다. 또 필자가 알아본 바로도 이 학교 올해 첫 졸업식장에서는 북한에서 보내온 축사가 낭독되었다. “우리는 이 신성한 교단에서 통일애국의 무수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알알이 키워 통일조국의 거목으로 자라워야(키워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북한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북이 보내온 축사를 낭독하는 기묘한 졸업식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두려운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천거 광장 촛불집회나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반값등록금 집회 등에 수시로 참가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일찍이 사회문제에 논

뜨게 하는 산교육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 집회는 이유가 어떻건 불법집회인 경우가 많다. 인격 미성숙단계인 청소년들에게 준법과 질서를 가르치기는커녕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선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심어주지 않겠는가.

필자는 늦봄 문익환 학교의 교과 과정을 직접 듣고 보지 않아 모르겠으되 보도대로라면 극좌편향의 교사진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좌익이념의 세례를 해주고 있으리라 본다. 학교 측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문익환목사의 통일운동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 중북 운동청년집단을 양성하는 것 아닌가. 법을 경시하고 반정부운동을 정당하게 여기도록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세뇌된 청년들. 이런 교육체제가 버젓이 전남의 한복판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 통탄할 일이다.

(자유기고가)

시 설

제 역할 못하는 문화시설 그대로 둘 건가

광주시가 거액을 투입, 설립한 문화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을 비롯 광엑스포 주제영상관 등이 운영면에서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활용도가 높은 광주주문예회관마저 시설이 노후해 관람분위기를 해치기 일쑤라니 문화수도 광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대표작인 게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이다. 지난 2010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을 연 복합문화관은 지난 3월 문화관 내 G시네마가 예술영화전용관에 선정됐다고 홍보까지 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다. 계약 시점에서 예술영화 의무상영일수 등을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상영권을 자진 반납하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애초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가 운영비로 연 3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문화관 내 3D영화관 G시네마 가동일은 올 들어 6

월말까지 단 27일에 그쳤고, 관람 인원도 400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상무시민공원내 ‘광엑스포 주제영상관’도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운영 프로그램은 빛고을유소년 영화체험전이 있지만 상반기에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쳤다. 영상관 운영 주체인 진흥원 측은 애니메이션 전용관, 4D전용관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중이나 낙후 시설 때문에 투자비가 만만찮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유일의 1000석 이상 공연장이던 광주주문예회관도 시설이 노후돼 소음 등으로 관람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화수도 광주를 말할 수 있겠는가. 광주시는 운영계획이나 콘텐츠 없이 문화시설을 무작정 설립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기존 문화시설도 철저히 정비해 문화수도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치안 허술한 ‘걷는 길’ 불안해 다닐 수 있나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살해사건으로 ‘걷는 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옛길’과 ‘걷는 길’이 중구난방식으로 조성되면서 치안 부재와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걷는 길’만 총 47곳이 지정돼 있고, 수백 개의 구간에 연결가리란 수천km에 달한다. 제주 올레길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걷는 길’ 열풍이 불었고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광주는 과거 도로보 이용하던 옛길을 복원한 총 11.8km 길이의 ‘무등산 옛길’이 있다. 이 길은 무등산 이동을 보완한 것으로, 대부분 구간이 차로에서 떨어진 인적이 드문 지역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인력이 없고, 폐쇄회로(CC)TV도 단 5대만 설치돼 있어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남에는 그야말로 ‘걷는 길’ 전국이

다. ‘남도 문화생태탐방로’의 경우 42곳에, 총연장 2385km, 136구간에 달하며 남도 갯길 6천리길, 감진 정약용 남도유배길, 해남 땅끝길, 영광 백수해안길, 곡성 삼진강길 등 잘 알려진 곳만도 수십 개에 이른다. ‘걷는 길’이 조성되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왔지만 대부분 마구잡이로 설계와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의 길이 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길이 조성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나무 데크, 철삼 등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환경 파괴도 난무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제 무분별한 ‘걷는 길’ 조성을 자제해야 한다. 타지역이 아니더라도 한다는 경쟁심이나 단체장의 치적용이러면 주민의 열세만 낭비할 뿐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친환경적인 길을 조성하고 치안 유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이다.

無 等 鼓

지난달 2일(현지시간) 오후 6시 20분, 캐나다 토론토의 유명 쇼펄물 ‘이튼센터’의 식당가에서 햄버거를 먹던 제사가 거위(여·24)는 불현듯 주변 공기가 탁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멈추고 식당 문을 나선 바로 그 순간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식당에 있던 25살 남성 1명이 숨지고 13살 소년 등 7명이 부상했다.

제사카는 그러나 죽음을의 신을 두 번이나 피하지 못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새벽 0시 40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영화관 ‘센추리 오로라 16’에서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보고 있던 제사카는 24살의 백인 청년이 난사한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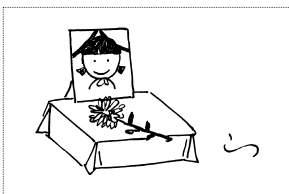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지 48일 만에 또 다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사카의 이야기는 ‘데스티네이션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운명론을 떠올리게 한다. 죽음의 징조를 알고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국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죽는다는 것이 요지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죽음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이다. 사냥을 하다가 곰의 발에 찢겨 죽은 원시인도, 전장을 서 참과 화살에 맞아 전사한 군인도, 길을 가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진 시민들도 모두가 운명이 정해놓은 죽음을 맞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운명론은 ‘뭔가 나 맡겨나’ 수준의 이야기거리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죽음에 예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와를 갑작스럽고 영원한 이별을 손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밀어 오르는 고통과 분노, 상실감으로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무참하게 숨진 이들과, 그들이 끝내 죽음의 징조를 알고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국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죽는다는 것이 요지다.

데스티네이션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지어 연이어 방송되는 두 프로그램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불륜의 심각성을 보도할 때에는 정말 시청자의 편의를 위한 방송인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케이블 방송의 강세가 시작되던 시절인 작년 말부터 기획보도가 아예 성범죄나 부부문제에 관련된 소재로 돌아선 것은 아침 시간대 방송이 보다 프로그램 배치와 소재 선택이 자유로운 케이블 방송과의 경쟁을 고려한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자극적인 소재로 끌어내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방송에는 케이블 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신뢰도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부 2200-536 서 지 사 자 02-773-9331 기 획 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